300-1-086. 신문조서(金洛俊 치안유지법 위반)

■ 金洛俊사건 신문조서 수록

- 金洛俊은 1917년 東京으로 가 노동을 하고 1918년 4월 明治大學 전문부 法科에 입학하여 수학중 獨立運動에 參加하기 위하여 露國에 갔다가 돌아와 1921년 中央大學 經濟科에 수학하며 苦學生同友會員이 되어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했다. 그 후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참가했으며, 1925년 1월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의 조직을 기도했으며, 全鮮신문기자대회를 개최하고 火曜會 주최의 전선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金在鳳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 朴憲永 등과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 강령·규약을 결정하고 曺奉岩을 露國에 파견, 국제공산청년회에 보고하여 가맹을 승인받았고, 各地에 靑年聯盟을 조직하여 조선청년총동맹 세포단체화하였다. 1926년 1월 呂運亨, 曺奉岩 등과 會同, 조선공산당 海外部를 조직하여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 후 국제공산당은 上海에 遠東部를 두었으며 조선공산당은 직접 遠東部의 지도를 받았으므로, 海外部는 滿洲 총국을 재건하였다. 총국 간부로 조선공산당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했으며, 사건 송치는 1931년 5월 26일에 있었다.
- 日人 공산주의자 白石好夫·茂木久平·簡牛凡夫 등 3명은 東京地方法院 檢事正에게 聽取書를 送付촉탁했다. 1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1931년 5월 21일 실시되었으며, 2회 신문조사는 5월 23일에 있었고, 3회는 5월 26일에 실시됐다. 4회는 5월 27일, 5회는 5월 28일, 6회는 5월 29일, 7회는 5월 30일, 8회는 6월 1일에 있었으며, 증인신문자는 洪悳裕·洪增植·辛容箕 등이다.
- 이 사건은 1931년 6월 4일 송치되었으며, 검사의 1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6월4일에 실시되었고, 張周璉·具然欽·安秉珍·崔元澤·金在鳳·鄭鍾鳴 등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2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6월 8일에 실시되었으며, 3회는 6월 11일에 실시되었고, 6월 12일 검사의 豫審請求가 있었다.
- 日人 簡牛凡夫·白石好夫·茂木久平 등 3명의 聽取조사가 있었고, 이들은 東京 地方法院 檢事正에게 촉탁되었다.